

기후분석정보



7월 우리나라 기후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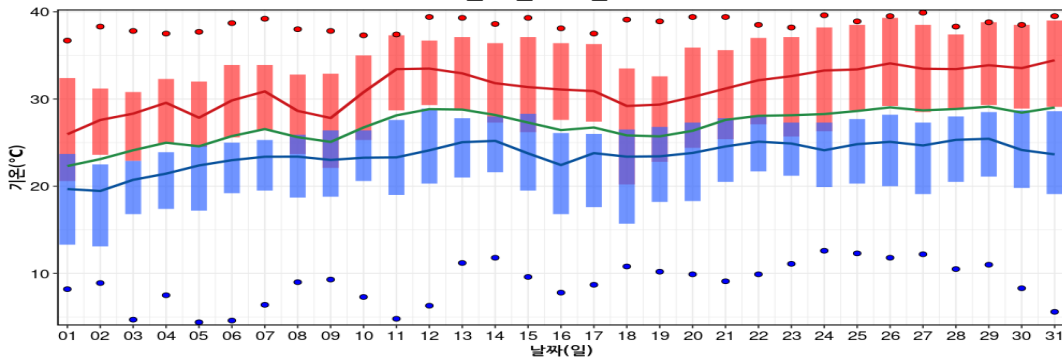
요약

7월 중부지방 호우-남부지방 폭염, 지역 양극화 뚜렷

- 평균기온 26.8℃로 1994년, 2025년에 이어 3위, 평균 최저기온(23.4℃) 1위, 폭염일수 8.9일(5위), 열대야일수 9.7일로 역대 최다
- 강수량 220.0mm로 평년(296.5mm) 대비 72.3% 수준으로 평년보다 적어, 주로 중부지방 중심으로 정체전선 형성되어 지역별 강수량 큰 차이, 경남 지역 강수량(68.0mm) 역대 최저

기온

7월 기온 시계열



※전국 62개 지점과 제주 4개 지점을 포함한 66개 관측자료 활용, (1973~1989년)전국 56개+제주 2개, (1990~2025년)전국 62개+제주 4개

▶ 최고기온
▶ 평균기온
▶ 최저기온

▶ 막대: 전국 기온 범위
▶ 실선: 전국 평균
▶ 점: 1973년 이래 극값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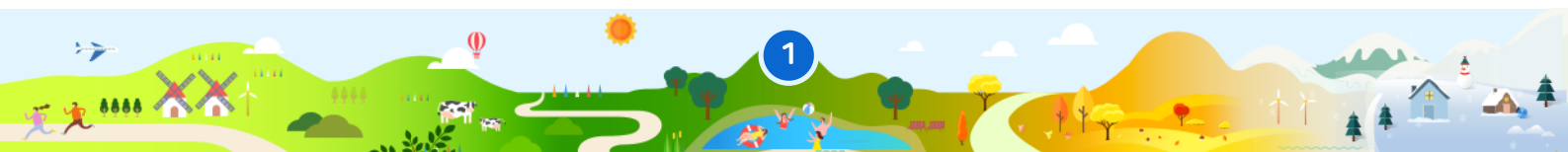
- 7월 전국 평균기온은 26.8℃(역대 3위)로 평년(24.6℃)보다 2.2℃ 높았으나, 역대 두 번째로 더웠던 작년(27.1℃)보다는 0.3℃ 낮았습니다. 7월 동안 기온이 대체로 평년보다 높게 지속되었고, 특히 10~17일과 하순에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전국 폭염일수는 8.9일(5위)로 평년(4.1일)보다 4.8일 많았고, 열대야일수는 9.7일로 평년(2.8일) 대비 3.5배로 이전에 가장 많았던 2024년(8.8일)보다 많아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기온 관련 기상요소별 순위 (1973년 이후 전국평균)

구분	2026년 7월			
	평균값 (℃)	평년값 (℃)	평년편차 (℃)	순위(상위)
평균기온	26.8	24.6	+2.2	3위
평균 최고기온	31.1	28.9	+2.2	5위
평균 최저기온	23.4	21.2	+2.2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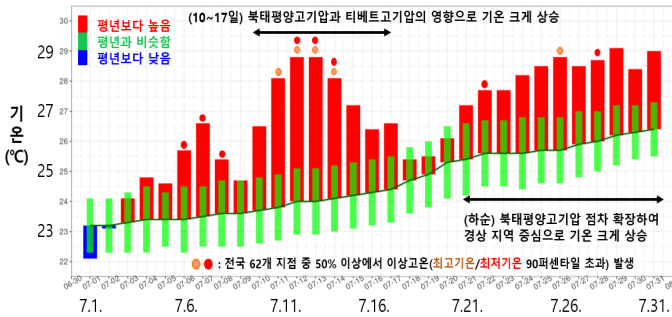
※ 전국평균: 1973년 이후부터 연속적으로 관측한 전국 62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1973~1989년) 56개 지점, (1990~2026년) 62개 지점)

※ 평년값: 1991~2020년 적용



기온

7월 일별 전국 평균기온 시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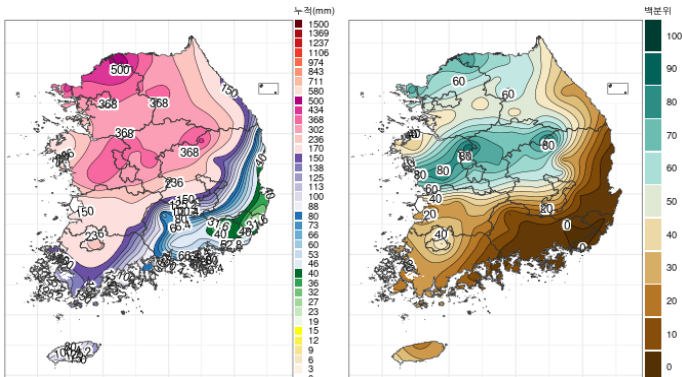


현황 및 특성

- (10~17일 고온)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 대비 크게 올랐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낮 동안 강한 햇볕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고, 밤에도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밤낮으로 무더위가 지속되었습니다.
- (하순 고온) 18~20일에는 비가 내리며 고온이 잠시 주춤하였으나, 이후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 남동쪽부터 확장하며 경상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였습니다.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된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며 강한 햇볕과 지형효과가 더해지면서 낮 최고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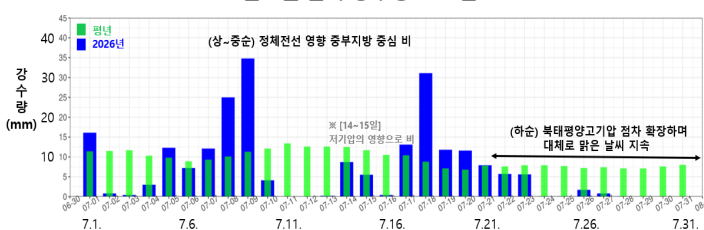
강수

2026년 7월 전국 강수량(mm)과 퍼센타일(%ile)



※ 전국 62개 지점과 제주 4개 지점을 포함한 66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

2026년 7월 전국 강수량 시계열(mm)



※ 전국 62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

현황

- 7월 전국 강수량은 220.0mm로 평년(296.5mm) 대비 72.3% 수준으로 평년보다 적었고, 작년(249.0mm)보다 29.0mm 적었습니다. 강수일수는 13.0일로 평년(14.8일)보다 1.8일 적었습니다.

특성

- (상~중순 정체전선 영향 비) 상~중순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고 특히, 15일경부터 캄차카반도 부근에 기압골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북쪽의 상층 찬 기압골이 동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과 북쪽의 찬 공기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발달하며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정체전선 상에서 남북으로 좁은 띠 형태로 비가 내렸습니다.
- (지역별 강수량 큰 차이) 중부지방은 강수량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였으나, 남부지방과 제주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습니다. 특히, 경남은 중순경부터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권에 놓여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어 강수량이 68.0 mm로 평년(304.7 mm)의 21.9% 수준으로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강수량 관련 기상요소별 순위 (1973년 이후 전국평균)

구분	2026년 7월		
	값	퍼센타일(강수량)/평년편차(강수일수)	순위(하위)
강수량	220.0mm	20%ile	16위
강수일수	13.0일	-1.8일	16위

※ 전국평균: 1973년 이후부터 연속적으로 관측한 전국 62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1973~1989년) 56개 지점, (1990~2026년) 62개 지점)

※ 평년값: 1991~2020년 적용



이상고온·저온 및 기상가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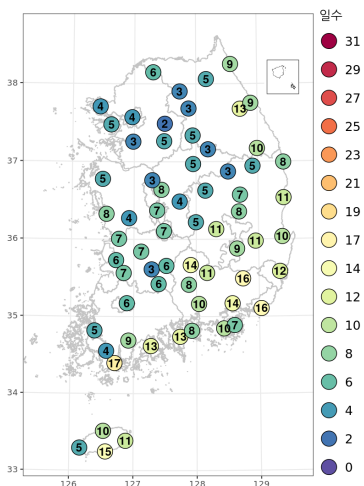
이상고온·저온 발생일수

▶ **이상고온(저온) 발생일수**: 이상고온(저온)은 평년(1991~2020년)에 비해 기온이 현저히 높은 극한현상으로 일최저·최고기온이 90퍼센타일 초과(10퍼센타일 미만)에 해당하는 일수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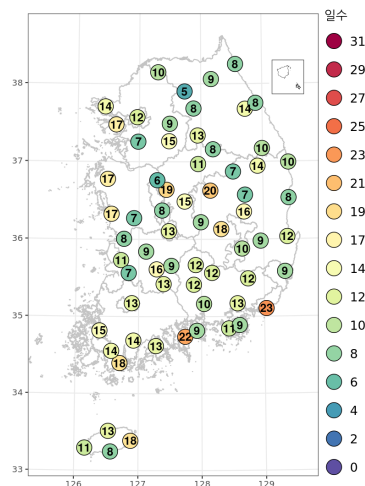
※ 퍼센타일: 평년(1991~2020년) 같은 기간에 발생한 기온을 비교하여 작은 순서대로 몇 번째인지 나타내는 백분위수



최고기온 기준 이상고온 발생일수(일)



최저기온 기준 이상고온 발생일수(일)



• **최고기온 기준 이상고온 발생 일수: 4.3일(작년 6.6일)**

• **주요지점 발생일수**: 완도 17일, 부산 16일, 밀양 16일, 서귀포 15일, 창원 14일, 거창 14일, 대관령 13일, 여수 13일, 고흥 13일

• **최저기온 기준 이상고온 발생 일수: 6.0일(작년 9.4일)**

• **주요지점 발생일수**: 부산 23일, 여수 22일, 문경 20일, 청주 19일, 완도 18일, 성산 18일, 구미 18일, 인천 17일, 서산 17일, 보령 17일

* 평균방법: 각 지점별 이상기온 발생 일수 산출 후 62개 지점 평균

기상가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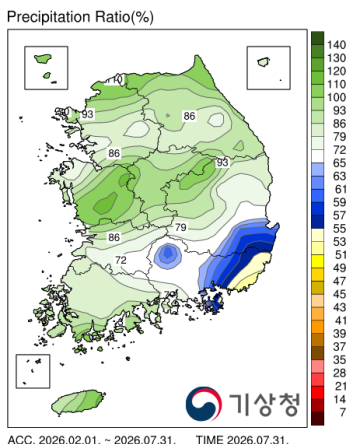
▶ **기상가뭄**: 최근 6개월('26.2.1.~'26.7.31.) 누적강수량이 평년 강수량보다 적은 현상

▶ **기상가뭄 판단 기준**: 최근 6개월 강수량(표준강수지수*)에 따라 약한-보통-심한-극심한 가뭄인 4단계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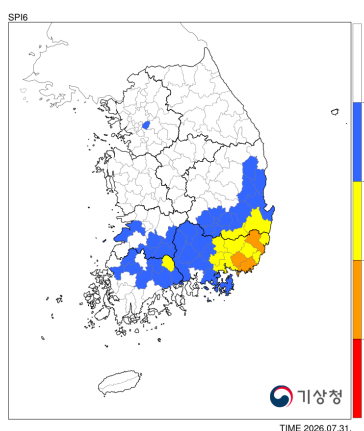
*표준강수지수(기상청): 최근 누적강수량과 과거(1973년~전년) 동일기간의 강수량을 비교하여 가뭄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습함(1.0 이상), 정상(0.99~0.99), 약한 가뭄(-1.00~1.49), 보통 가뭄(-1.50~1.99), 심한 가뭄(-2.0 이하), 극심한 가뭄(-2.0 이하 20일 이상)

강수평년비(%)



가뭄 현황



• **6개월('26.2.1.~'26.7.31.) 전국 누적강수량: 603.1mm로 평년(728.8mm) 대비 83.2%입니다.**

※ 전국 평년비: 제주(4개 지점)를 제외한 62개 지점의 평년비를 평균한 값

• **가뭄 현황(7.31. 기준)**: 전라, 경상 지역을 중심으로 48개 시·군에 기상가뭄이 있고, 부산, 김해, 울주에 심한 가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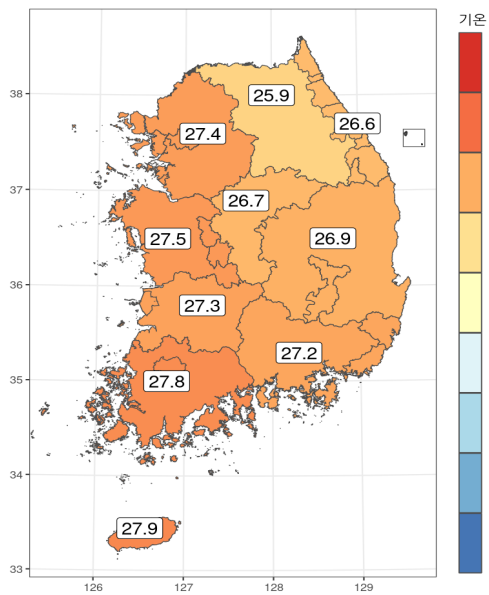


주요 기후요소 비교 - 기온·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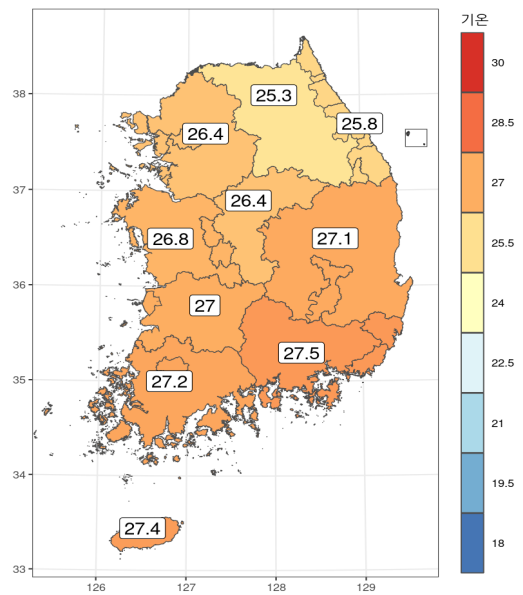
작년 비교

- 7월 전국 평균기온은 작년보다 0.3℃ 낮았고, 강수량은 작년보다 29.0mm 적었습니다.
- [기온] 올해(26.8℃) vs 작년(27.1℃)
경상 지역에서는 기온이 작년보다 높았고, 그 외 대부분 지역에서는 기온이 작년보다 낮았으며, 작년 대비 -1.0~0.3℃ 분포를 보였습니다.
- [강수] 올해(220.0mm) vs 작년(249.0mm)
수도권, 강원, 충북, 제주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작년보다 많았고, 충남, 전라, 경상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작년보다 적었으며, 작년 대비 -237.8~138.0mm 분포를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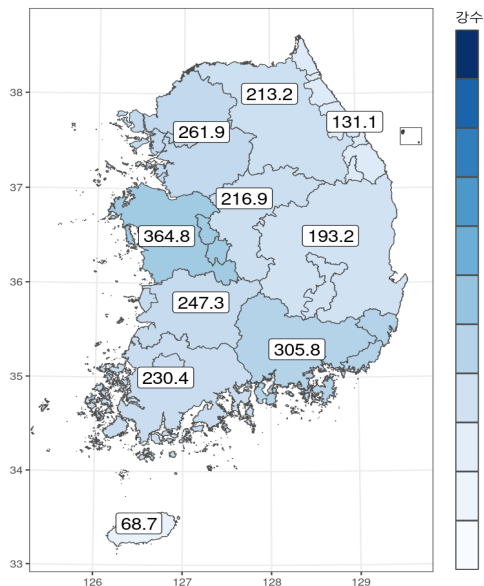
2025년 7월 평균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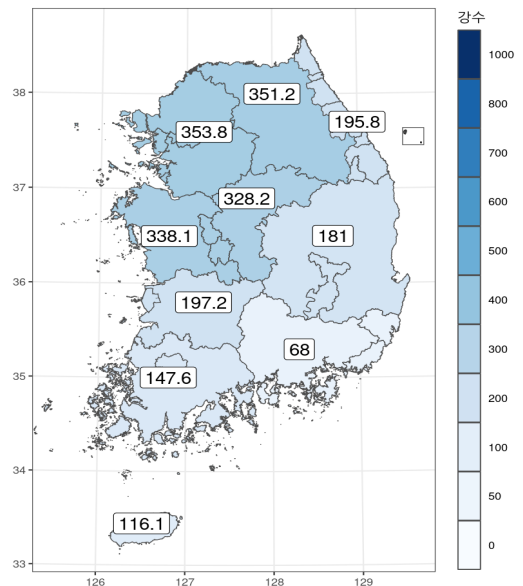
2026년 7월 평균기온(℃)



2025년 7월 강수량(mm)



2026년 7월 강수량(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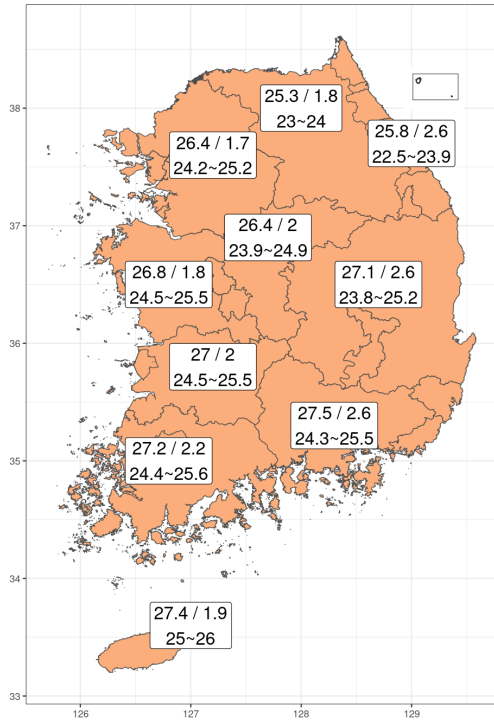


※ 전국 66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제주 평균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4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

평년 비교

- 7월 평균기온은 평년(24.6℃)보다 2.2℃ 높았고, 강수량은 평년(296.5mm) 대비 72.3% 수준으로 평년보다 적었습니다.
- [기온] 전국 평균기온은 26.8℃로 평년(24.0~25.2℃)보다 높았으며, 전국적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습니다.
- [강수량] 전국 강수량은 220.0mm로 평년(245.9~308.2mm)보다 적었으며, 충남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았고, 수도권, 강원 영서, 충북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였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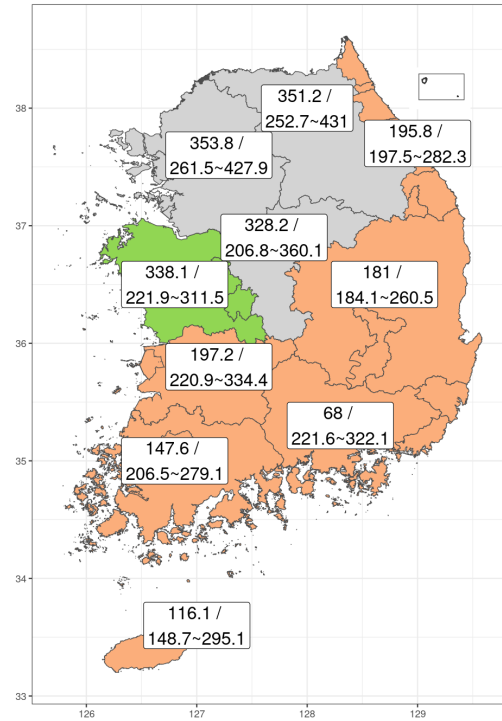
평균기온(℃)



낮음 비슷 높음

※ 네모 박스 위: 월 평균값(℃)/편차(℃),
아래: 평년(1991~2020년) 비슷범위(℃)

강수량(mm)



적음 비슷 많음

※ 네모 박스 위: 월 누적값(mm),
아래: 평년(1991~2020년) 비슷범위(mm)

※ 평년비슷범위: 과거 30년(1991~2020년)간 연도별 30개의
평균값 중 대략적으로 33.33%~66.67%에 해당하는 값

상한
하한
평균기온의 평년값
강수량의 증감값

우리나라 월별 평균기온 평년편차와 순위 (2025년 8월 ~ 2026년 7월)

년/월	2025년					2026년							기준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월평균(℃)	27.1	23.0	16.6	8.5	2.4	-1.6	2.7	7.4	13.8	18.6	22.2	26.8	
평년편차(℃)	+2.0	+2.5	+2.3	+0.9	+1.3	-0.7	+1.5	+1.3	+1.7	+1.3	+0.8	+2.2	평년(1991 ~ 2020년)
순위(상위)	2	2	1	11	10	37	9	9	3	1	7	3	1973 ~ 2026년

※ 전국평균 및 순위: 1973년 이후 연속적으로 관측한 전국 62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1973~1989년) 56개 지점, (1990~2026년) 62개 지점)

주요 기후요소 비교- 폭염·열대야일수

작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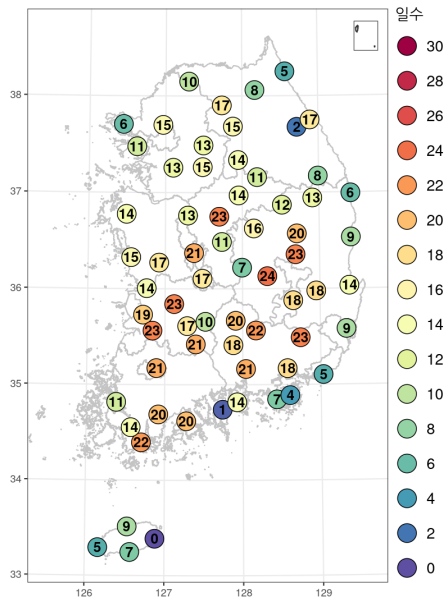
· [폭염일수] 올해(8.9일) vs 작년(14.5일)

올해 폭염일수는 경상 지역을 중심으로 15일 이상 발생하였고, 중부지방과 전라 지역에서는 대체로 폭염일수가 작년보다 적었으나, 경상과 제주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많았습니다(평년 4.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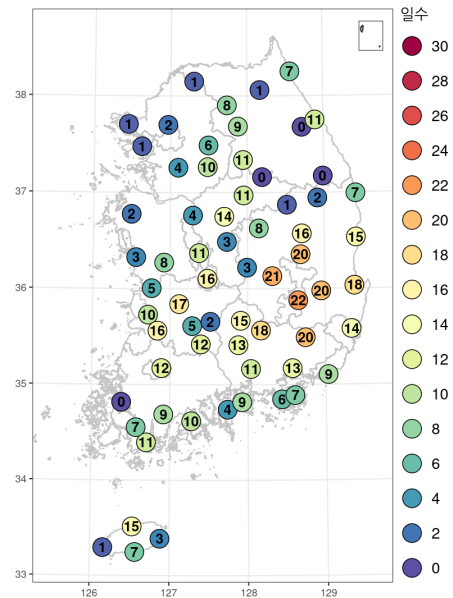
· [열대야일수] 올해(9.7일) vs 작년(6.7일)

올해 열대야일수는 서쪽지역, 남해안, 제주, 대도시를 중심으로 10일 이상 발생하였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대체로 작년과 비슷하거나 많았습니다(평년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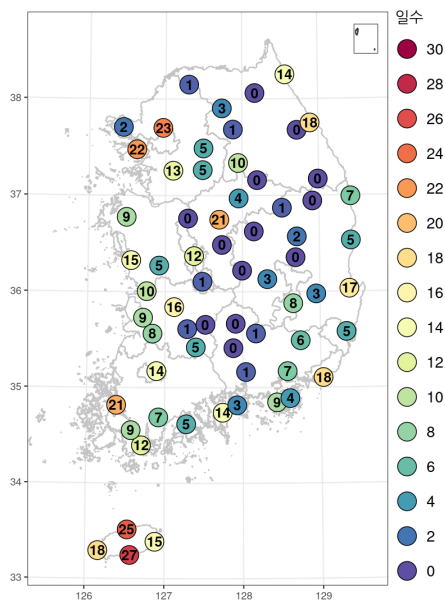
2025년 7월 폭염일수(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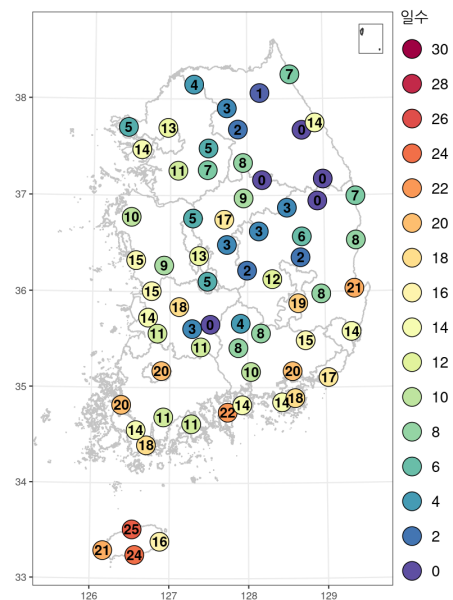
2026년 7월 폭염일수(일)



2025년 7월 열대야일수(일)



2026년 7월 열대야일수(일)



※ 폭염일수: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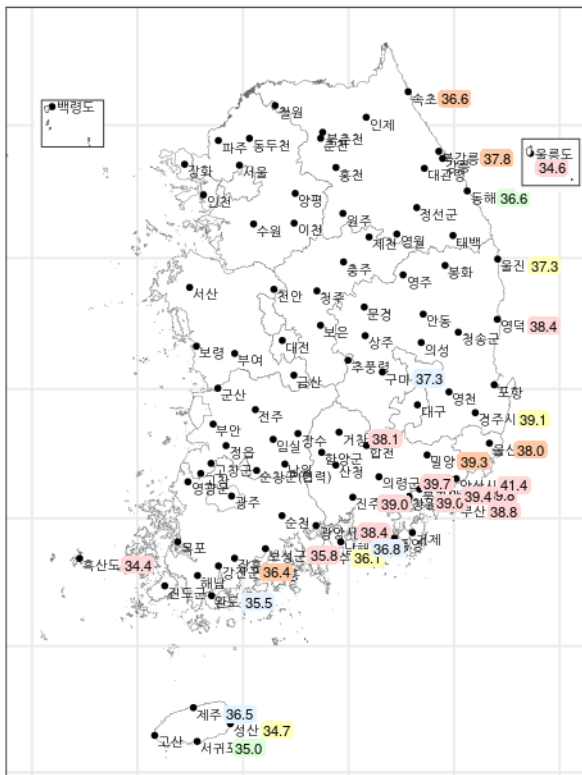
※ 열대야일수: 밤최저기온(18:01~다음날 09:00)이 25℃ 이상인 날의 수

주요 기후요소 비교- 극값

우리나라 극값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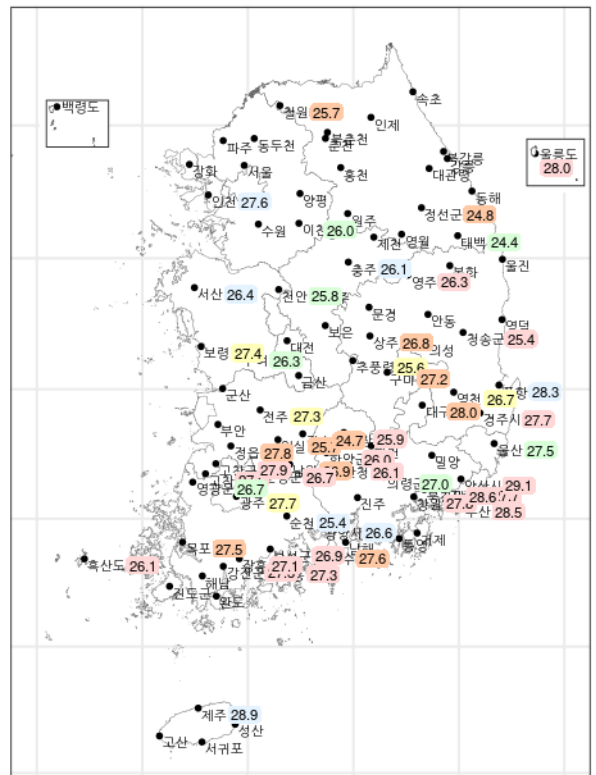
- **[최고기온]**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의 영향을 받은 가운데, 낮 동안의 강한 햇볕과 지형효과가 더해지면서 동해안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최고 5위 이내를 기록한 지점이 있습니다.
- **[최저기온]** 고온다습한 공기가 남서풍을 따라 유입되면서 밤사이 복사냉각을 약화시켜 낮에 오른 기온이 떨어지지 못해 일최저기온 최고 5위 이내를 기록한 지점이 많습니다.

일최고기온 최고(°C)



- 1위: 양산시(41.4°C), 김해시(39.8°C), 의령군(39.7°C), 북창원(39.4°C), 창원(39°C), 진주(39°C), 부산(38.8°C), 광양시(38.4°C), 영덕(38.4°C), 거창(38.1°C), 보성군(35.8°C), 울릉도(34.6°C), 흑산도(34.4°C)
- 2위: 밀양(39.3°C), 울산(38°C), 북강릉(37.8°C), 속초(36.6°C), 강진군(36.4°C)
- 3위: 경주시(39.1°C), 울진(37.3°C), 여수(36.1°C), 성산(34.7°C)
- 4위: 동해(36.6°C), 서귀포(35°C)
- 5위: 구미(37.3°C), 남해(36.8°C), 제주(36.5°C), 완도(35.5°C)

일최저기온 최고 극값(°C)



- 1위: 양산시(29.1°C), 북창원(28.6°C), 부산(28.5°C), 울릉도(28°C), 고창군(27.9°C), 창원(27.8°C), 고창(27.8°C), 김해시(27.7°C), 경주시(27.7°C), 강진군(27.3°C), 고흥(27.3°C), 장흥(27.1°C), 보성군(26.9°C), 순창군(협력)(26.7°C), 영주(26.3°C), 흑산도(26.1°C), 산청(26.1°C), 함양군(26°C), 거창(25.9°C), 청송군(25.4°C)
- 2위: 대구(28°C), 정읍(27.8°C), 여수(27.6°C), 목포(27.5°C), 미(27.2°C), 남원(26.9°C), 상주(26.8°C), 철원(25.7°C), 임실(25.7°C), 정선군(24.8°C), 장수(24.7°C)
- 3위: 광주(27.7°C), 보령(27.4°C), 전주(27.3°C), 영천(26.7°C), 추풍령(25.6°C)
- 4위: 울산(27.5°C), 의령군(27°C), 영광군(26.7°C), 부여(26.3°C), 이천(26°C), 천안(25.8°C), 태백(24.4°C)
- 5위: 제주(28.9°C), 포항(28.3°C), 인천(27.6°C), 광양시(26.6°C), 서산(26.4°C), 충주(26.1°C), 순천(25.4°C)

※ 각 지점별 관측개시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속적으로 관측한 93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같은 극값이 2개 이상 존재할 때는 최근 값을 우선순위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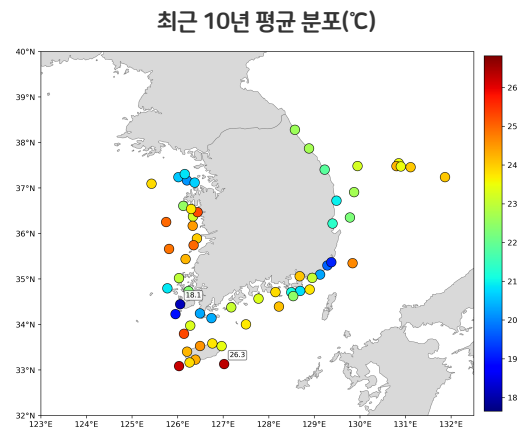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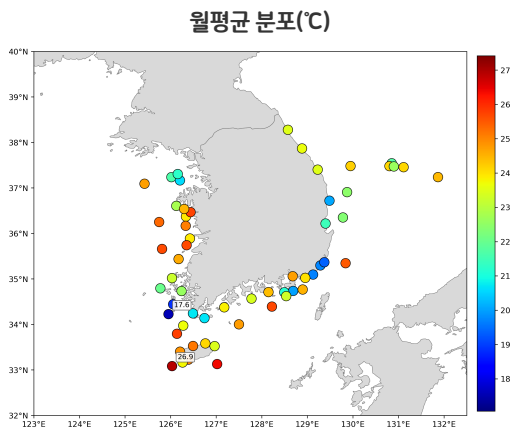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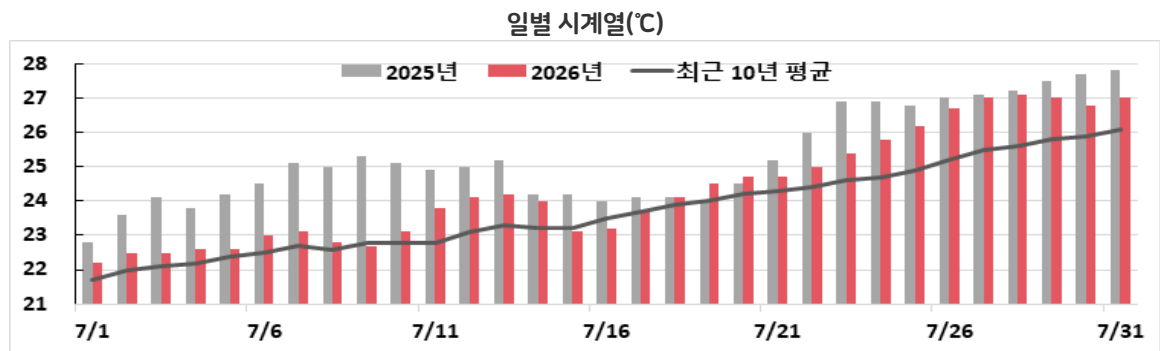


7월 해양 기후 특성

한반도 해수면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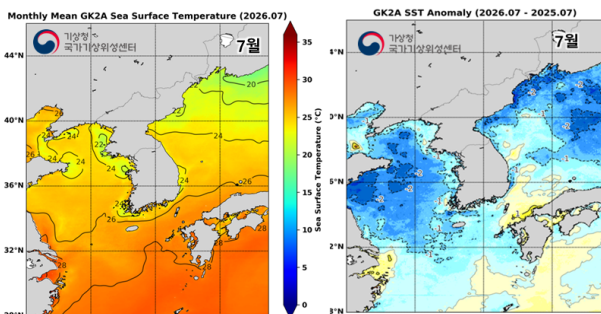
- **[관측자료]** 7월 우리나라 주변 해역 평균 해수면 온도는 24.3℃(최근 10년 중 4위)로, 최근 10년 중 가장 해수면 온도가 높았던 작년보다 1.0℃ 낮았으나 하순부터 서·남해를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하순 기간의 해수면 온도는 최근 10년(2017~2026년) 중 서해(25.6℃)와 남해(27.6℃) 모두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 전해역 7월 순별 해수면 온도(최근 10년 대비 편차): 상순 22.7℃(+0.3℃), 중순 23.9℃(+0.5℃), 하순 26.1℃(+1.0℃)
- **[재분석자료]** 해역별 평균 해수면 온도(평년 대비 편차): 서해 23.2℃(+1.3℃), 남해 24.2℃(+0.9℃), 동해 22.4℃(+1.8℃)
※ 미국 해양대기청(NOAA) OISSTv2 활용

7월 해수면 온도 관측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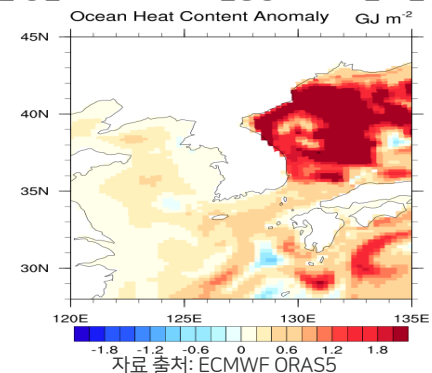


위성 관측 및 재분석자료

월 평균 해수면 온도(왼쪽), 전년 대비 해수면 온도 편차 분포도(오른쪽)
(천리안위성 2A호)



6월 평년(1991~2020) 대비 열용량(0~300m) 편차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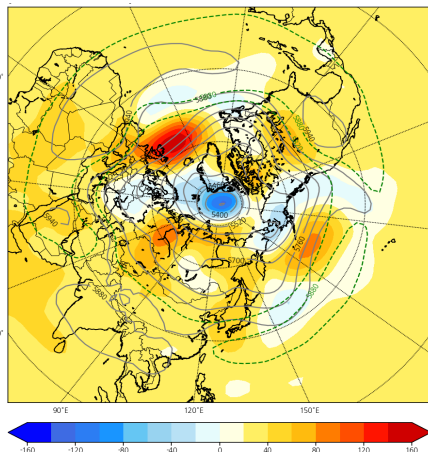


기후학적 원인분석

전 지구 순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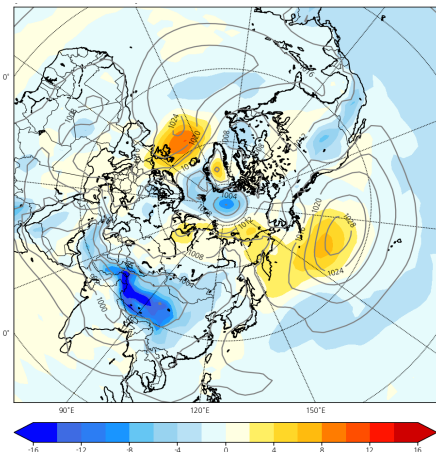
- **[500hPa 지위고도]** 그린란드 남동부 부근의 북대서양, 서유럽, 아프리카, 중동, 시베리아, 아시아, 캄차카반도 부근, 캐나다 동부, 미국 등에서 평년보다 높은 지위고도가 나타났고, 북~동유럽, 베링해부근~알래스카, 캐나다 서부 등에서는 평년보다 낮은 지위고도가 나타났습니다.
 - **[해면기압]** 그린란드 남동부 부근의 북대서양, 서유럽, 시베리아, 캄차카반도 부근 등에서 평년보다 높은 해면기압이 나타났고, 북~동유럽, 아프리카 남부, 중동, 아시아, 캐나다 서부, 미국 서부 등에서는 평년보다 낮은 해면기압이 나타났습니다.
- ※ 지위고도: 지면에서 특정 기압이 되는 높이로 지위고도가 주변보다 높으면 고기압, 낮으면 저기압을 의미

500hPa 지위고도(m)



- ▶ 채색: (빨강)평년(1991~2020년)보다 높은 지위고도, (파랑)평년보다 낮은 지위고도
- ▶ 실선: (검정)7월 평균 지위고도, (초록)7월 평년 지위고도

해면기압(h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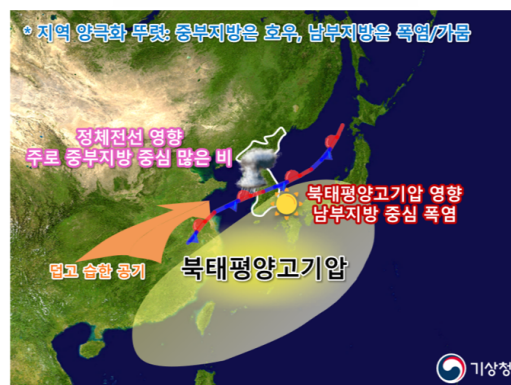


- ▶ 채색: (빨강)평년(1991~2020년)보다 높은 해면기압, (파랑)평년보다 낮은 해면기압
- ▶ 실선: (검정)7월 평균 해면기압

※ 자료출처: 미국 환경예측센터 NCEP(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재분석자료

7월 주요 기후특성: 중부지방 호우-남부지방 폭염의 지역 양극화 뚜렷

7월 기후특성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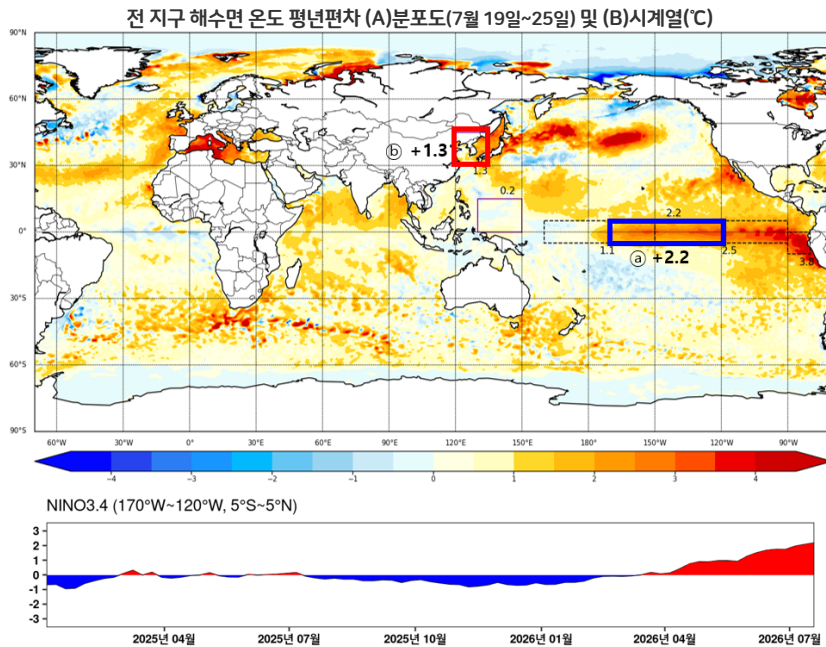
- **[7월 기후특성]** 7월 동안 정체전선이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된 반면, 남부지방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권에 놓여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고온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부지방은 호우, 남부지방은 폭염과 가뭄이 나타나며 지역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 **[경남 지역 가뭄 심화 및 일최고기온 40℃ 이상 폭염]** 경남은 6월에 이어 7월에 중순경부터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권에 놓여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어 강수량이 매우 적어 가뭄이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하순에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 남동쪽부터 확장하며 경상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였고, 특히 28~31일에는 경남 지역의 일최고기온이 4일 연속 역대 1위(각 해당일 기준)를 기록할 정도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고온 다습한 공기 유입과 강한 햇볕에 더해, 서풍 계열의 바람이 평년 대비 강화되어 지형효과로 기온이 더욱 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후 감시 정보

해수면 온도

▶ 우리나라 엘니뇨(라니냐) 정의: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열대 태평양 Nino3.4 지역: 5°S~5°N, 170°W~120°W)의 3개월 이동 평균한 해수면 온도의 평년편차가 +0.5°C 이상(-0.5°C 이하) 5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라니냐)의 시작으로 봄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 5°S~5°N, 170°W~120°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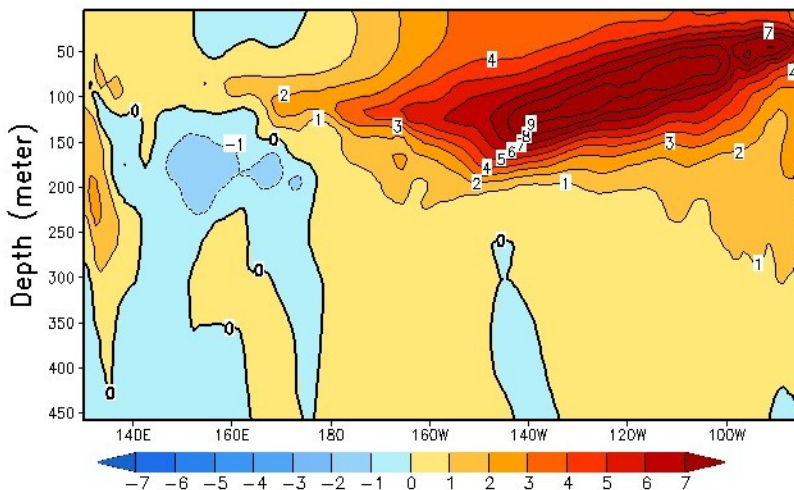
㉡우리나라 주변: 30°N~45°N, 120°E~135°E

※ 자료출처: NOAA OISSTv2(Optimum Interpolation Sea Surface Temperature version2, 최적 내삽(버전2)된 해수면 온도)

• [전 지구 해수면 온도]

: 최근 해수면 온도는 열대 태평양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에서 평균 29.3°C로 평년보다 2.2°C 높았고,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면 온도는 평균 25.4°C로 평년보다 1.3°C 높았습니다.

열대 태평양 해저수온 평년편차(7월 27일 기준)(°C)



※ 평년보다 높은 수온(빨강)/평년보다 낮은 수온(파랑)

※ 자료출처: NOAA/Pacific Marine Environmental Laboratory/Tropical Atmosphere Ocean project(www.pmel.noaa.gov/tao)

• [열대 태평양 해저수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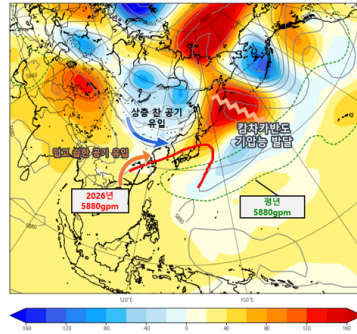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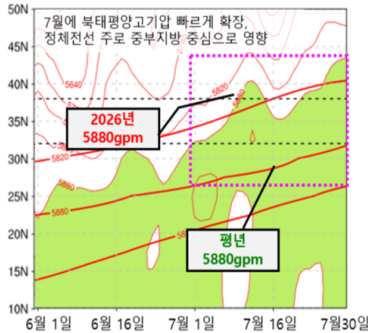
: 7월 27일 기준, 서태평양(130°E~170°W) 수심 150m 아래에서 -1°C~0.5°C의 음의 해저수온 편차가 나타나고 있고, 그 외 대부분 지역에서는 최대 9°C 가량의 강한 양의 해저 수온편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 감시 정보

계절 감시 및 분석

지역별 강수량 큰 차이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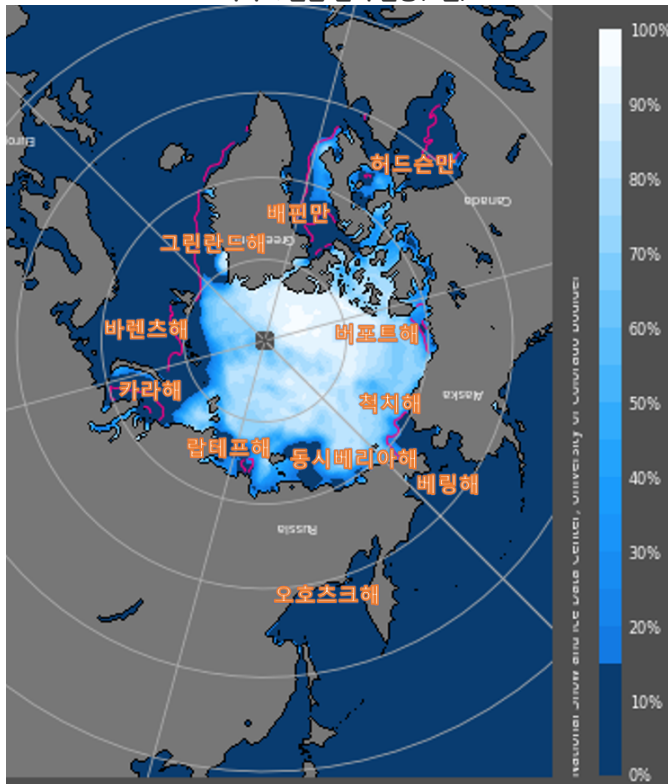
125~130°E 경도로 동서 평균한 500hPa 지위고도의 일별(5일 이동 평균) 남북방향 위치 2026년 7월 17~19일 500hPa 지위고도 편차 분포도



• [지역별 강수량 큰 차이 원인]

: 7월 초에 태풍(제9호 '바비')이 발달하여 중국 상하이 부근으로 북상하면서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하였던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가 빠르게 북쪽으로 확장하였고 10일경에 북한 지역까지 확장하여 정체전선이 중부지방~북한 지역에 위치하였습니다. 또한, 15일경부터 캄차카반도 부근에 기압능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과 북쪽의 찬 기압골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발달하며 비가 내렸지만, 정체전선은 주로 중부지방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남부지방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권에 놓여 강수량이 적었습니다.

북극해 얼음 면적 현황(7월)



▶ 실선: (분홍색)북극해 얼음 평년(1981~2010년) 면적
※ 자료출처: 미국 설빙데이터센터(NSIDC)

• [북극해 얼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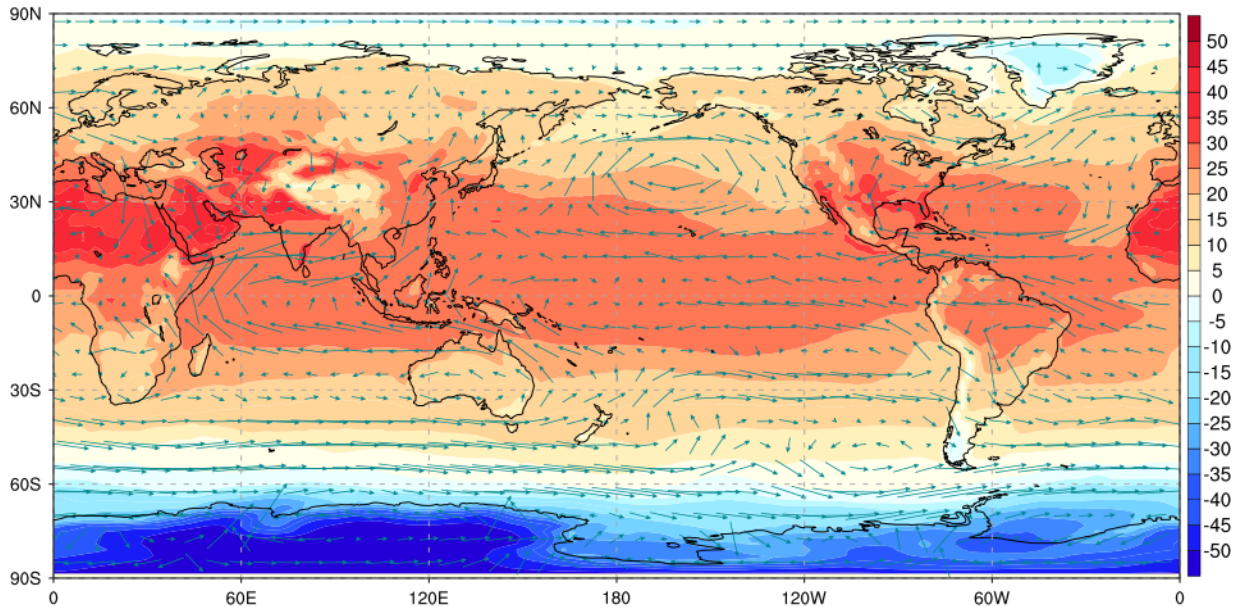
: 북극해 얼음은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적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카라바렌츠해에서는 평년보다 적은 분포를 보였고, 베링해에서는 평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7월 평균 기준, 바렌츠해에서는 역대(1979년 이후) 최저를 기록하였습니다.



전 세계 기온

- 전 세계적으로 7월 평균기온은 17.4℃였으며, 평년(15.9℃) 대비 1.5℃ 높았습니다.
- [평년 대비 높은 지역] 유럽, 아프리카, 중동, 북시베리아, 중앙아시아, 호주, 캐나다 북부, 미국, 남아메리카
- [평년 대비 낮은 지역] 카스피해 부근, 중국 북부, 그린란드

a) 평균기온(℃)



b) 평균기온 평년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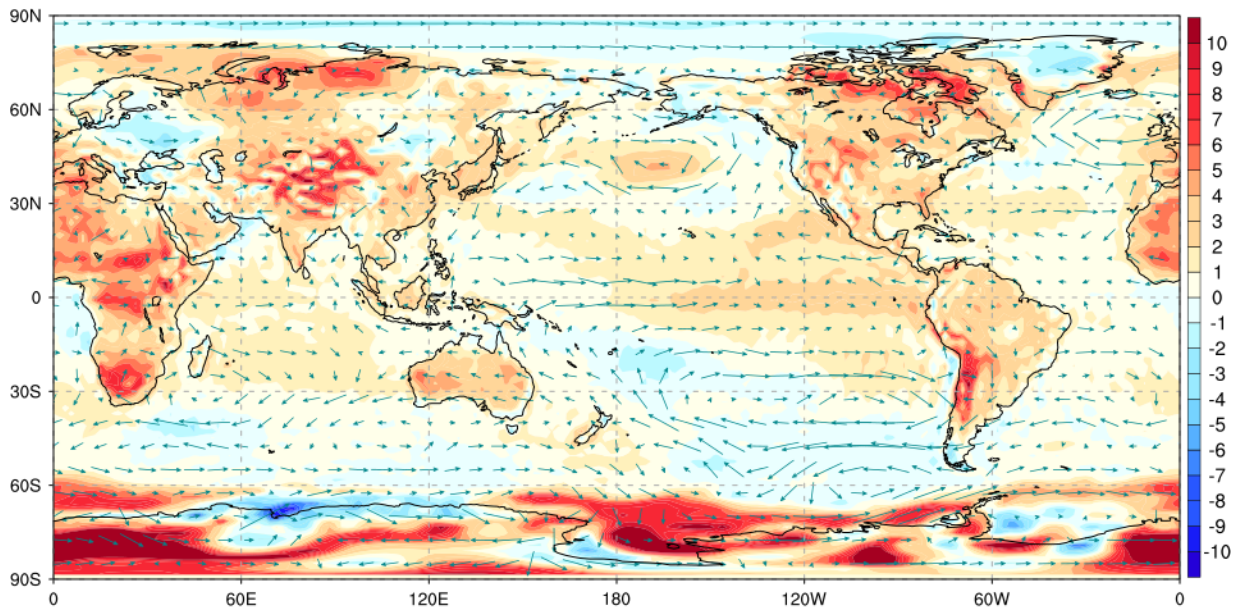


그림 a) ▶ 채색: (빨강) 0℃ 이상의 평균기온, (파랑) 0℃ 미만의 평균기온, 화살표: (청록색) 850hPa 평균바람

그림 b) ▶ 채색: (빨강) 평년보다 높은 기온, (파랑) 평년보다 낮은 기온, 화살표: (청록색) 850hPa 평균바람 평년편차

그림 b) 평균기온 평년편차(℃): 2026년 7월 평균기온 - 평년(1991~2020년) 7월 평균기온

※ 자료출처: 미국 환경예측센터(NCEP,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재분석자료(2m 평균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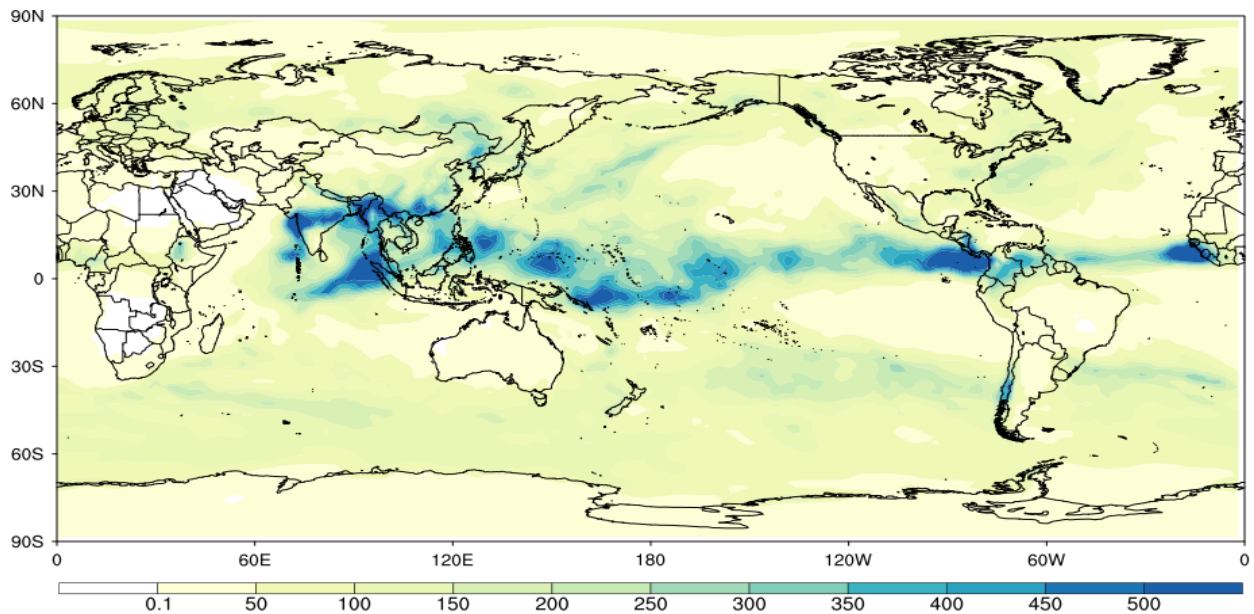
※ 전 세계 평균기온값과 평년편차값은 모델 기반 재분석자료를 평균한 값이므로 실제 관측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강수량

- 전 세계적으로 7월 누적강수량은 104.2mm였으며, 평년(91.8mm)보다 12.4mm 많았습니다.
- [평년 대비 많은 지역] 인도 북부, 뉴질랜드, 알래스카 서부, 캐나다 서부, 미국 서부, 그린란드 서부, 남아메리카 북서부·남부
- [평년 대비 적은 지역] 유럽 남부, 아프리카 중부, 중앙시베리아, 캐나다 중부, 미국 동부, 남아메리카 동부

a)강수량(mm)



b)강수량 평년편차(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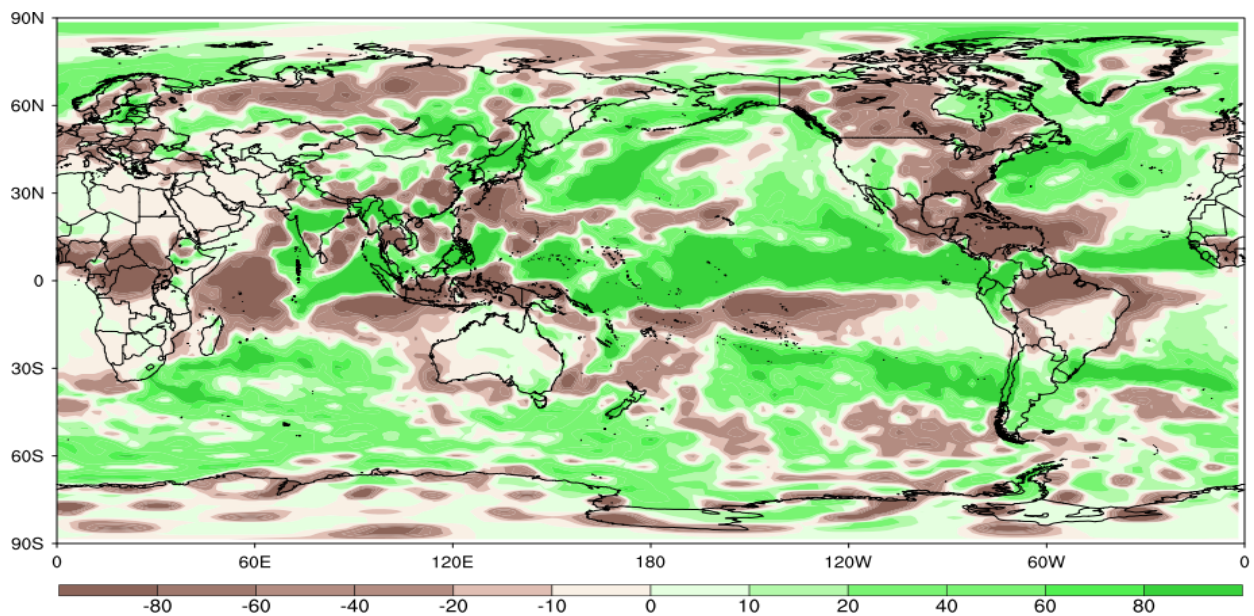


그림 a) ▶ 채색: (초록)월 누적 강수량

그림 b) ▶ 채색: (초록)평년보다 많은 강수량, (갈색)평년보다 적은 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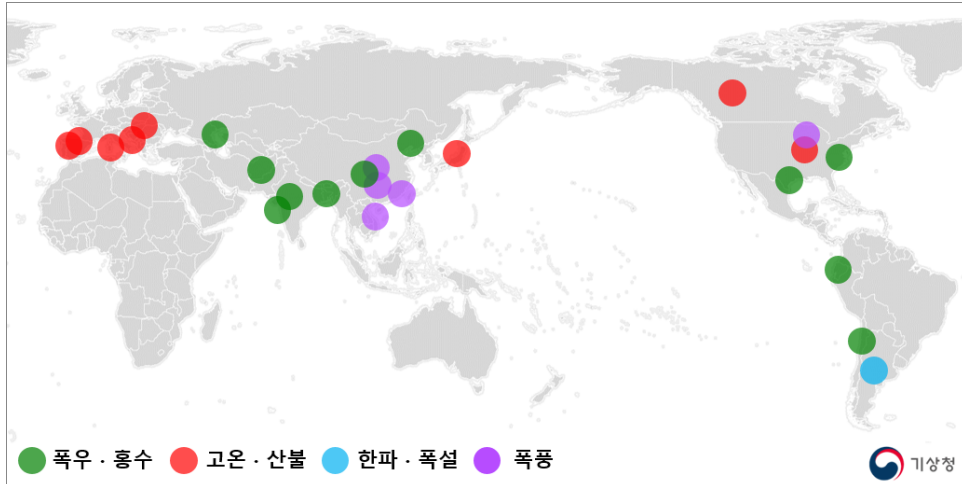
그림 b) 강수량 평년편차(mm): 2026년 7월 누적 강수량 - 평년(1991~2020년) 7월 누적 강수량

※ 자료출처: 미국 환경예측센터(NCEP,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재분석자료

※ 전 세계 평균 누적 강수량값과 평년편차값은 모델 기반 재분석자료를 평균한 값이므로 실제 관측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7월 전 세계 기상재해



● 폭우·홍수

- . (파키스탄) 몬순 폭우와 홍수로 113명 사망(6.26~7.28.)
- . (중국) 랴오닝성에 최대 300mm 넘는 폭우로 3명 사망(7.4.), 남서부 충칭에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발생, 8명 사망, 34명 실종(7.17.)
- . (에콰도르) 남동부에서 폭우·돌발홍수로 9명 사망, 9명 실종(7.7.)
- . (인도·방글라데시) 몬순 폭우로 최소 22명 사망(7.7.)
- . (러시아) 다게스탄에 폭우로 인한 홍수 발생, 마을 60여 곳 고립(7.10.)
- . (미국) 텍사스에 폭우로 인해 홍수경보 발령(7.16.), 뉴욕 시간당 50mm 안팎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발생(7.19.)
- . (칠레)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13명 사망, 7명 실종(7.17.~21.)
- . (아프가니스탄·인도) 몬순(우기) 폭우로 인해 홍수, 산사태 발생, 방글라데시 54명, 인도 19명 사망(7.19.~23.)

● 고온·산불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41℃ 폭염 속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 확산으로 40ha 이상 소실(7.1.)
- . (미국) 중서부에서 동부까지 형성된 열돔 영향으로 25명 사망(7.5.)
- .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프랑스) 대형 산불 발생, 스페인 6,600㎢ 소실, 12명 사망, 7명 실종, 그리스 2명 사망(6.30.~7.12.)
- . (일본) 폭염으로 인해 7명 사망(7.14.)
- . (스페인) 중부 사라고사주에서 산불로 인해 15,400ha 소실(7.15.~19.), 북동부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12,000ha 소실(7.16.~19.)
- . (캐나다) 전역에서 대형 산불 발생, 19일 0시 기준 971건(7.19.)
- . (프랑스·스페인) 대형 산불 확산으로 프랑스 420㎢ 소실, 26만 명 대피, 스페인 500㎢ 소실, 11만6,000명 대피(7.22.~26.)
- . (그리스) 대형 산불로 1만 2,000ha(120km²) 이상 소실, 3명 사망(7.29.~8.1.)

● 폭풍

- . (베트남) 제10호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홍수와 강풍 발생(7.6.)
- . (중국) 후베이성에 폭우와 강풍, 천둥·번개를 동반한 토네이도 발생, 11명 사망(7.6.), 제10호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38명 사망, 9명 실종(7.7.), 제12호 태풍 '노을' 영향으로 10명 사망, 약 90만 명 대피(7.26.)
- . (중국·대만) 제9호 태풍 '바비' 영향으로 중국에서 240만 명 이상 대피, 대만에서 100여 명 부상(7.12.)
- . (미국) 중서부에 토네이도로 폭우와 강풍 발생, 50만 가구 이상 피해(7.28.)

● 폭설·한파

- . (아르헨티나) 남극발 한파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산, 중부 해안 지역엔 눈(7.2.~6.), -27℃의 한파와 3m의 기록적인 폭설(7.21.)

※ 우리나라와 전세계 기상이슈에 대한 정보를 매주 주간기후이슈를 통하여 기후정보포털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링크를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climate.go.kr/home/bbs/list.php?code=27&bname=scrap>)

기후 이슈

- 폭염·열대야 변화 특성 분석: 발생 빈도 증가뿐 아니라 발생 기간도 확대 -

폭염·열대야일수의 변화 특성

지난 53년(1973~2025년)간 연간 전국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는 각각 10년당 +1.8일, +1.6일로 뚜렷한 증가 추세가 나타났고, 최근 10년(2016~2025년)에는 18.3일, 12.2일로 과거 10년(1973~1982년)보다 약 2.2배(8.3일 → 18.3일), 3.0배(4.1일 → 12.2일) 많았습니다. 월별로는 폭염일수는 8월에 증가 추세가 가장 뚜렷하고 6월에도 증가 경향을 보인 반면, 열대야일수는 7월과 8월 모두 증가 경향이 뚜렷하였고, 특히 201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과 2025년 9월에는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가 역대 1~2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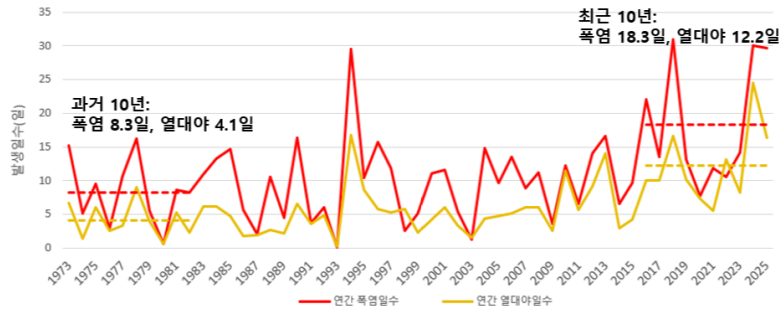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1973~2025년) 연간 전국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

시작일과 종료일의 변화 특성

(폭염) 과거 10년 대비 최근 10년에 폭염 시작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30일가량 빨라졌습니다. 과거 10년에는 강릉과 일부 경상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7월에 폭염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최근 10년에는 6월 상~중순에 동쪽지역을 시작으로 6월 하순에 해안 지역을 제외한 서쪽지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종료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과거 10년에는 대체로 8월 중순경이었지만, 최근 10년에는 8월 중~하순경에 폭염이 종료되며 10일 안팎으로 늦어진 경향을 보였습니다.

(열대야) 대부분 지역에서 시작일은 과거 10년에 7월 중~하순에서 최근 10년에 7월 상~중순경으로 5~15일가량 빨라진 반면, 종료일은 과거 10년에 8월 상~하순에서 최근 10년에 8월 중순~9월 상순경으로 10~20일가량 늦어졌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7~8월에 걸쳐 열대야가 발생하면서 열대야일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최근 10년에 9월 상순경까지 열대야 종료일이 늦어지며, 체감하는 여름철 더위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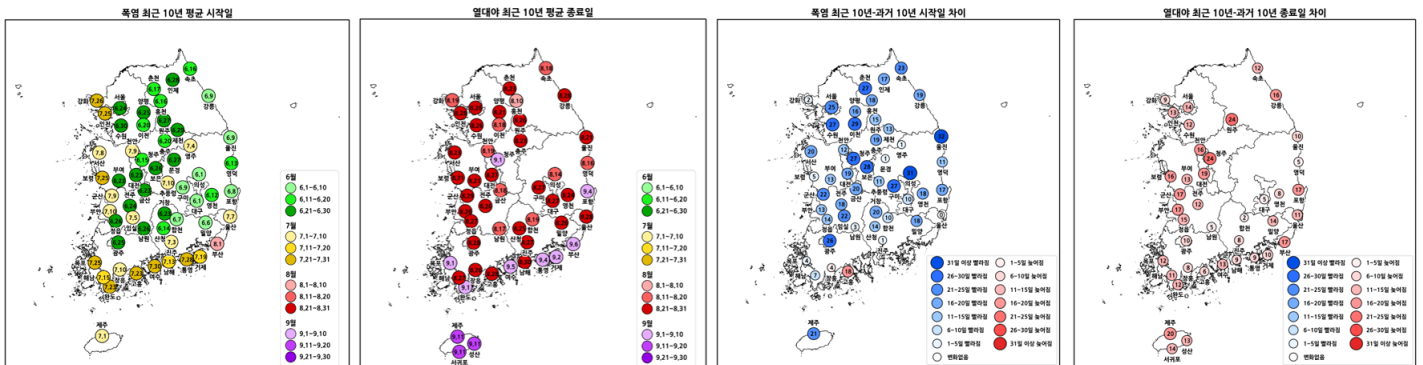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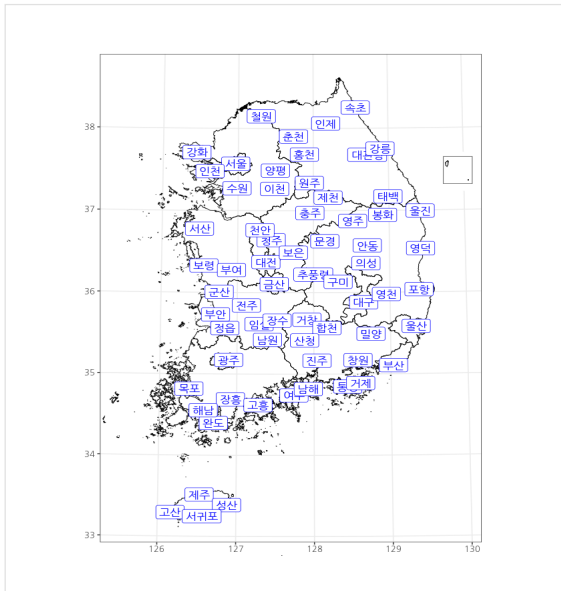
그림 2. 폭염·열대야 시작일과 종료일 변화 특성 분포도

변화 특성 원인 분석

폭염과 열대야 발생 시기의 변화 원인은 기온 상승, 북태평양고기압의 이른 확장과 영향 기간 확대, 해수면 온도 상승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최근 10년에 북태평양고기압이 6월부터 북서쪽으로 확장하면서 기온 상승 추세와 더불어 과거보다 이른 시기에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에 도달하여 폭염 발생 시작일을 앞당기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8월 하순에도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 남쪽에 머물며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 상승도 따뜻한 공기의 해안 지역 유입, 수증기 증가 등에 영향을 주어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밤사이 복사냉각을 약화시켜 열대야 발생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여 열대야가 좀 더 늦게까지 발생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점 위치정보



• ▶ 지점 위치정보

- 전국 62개 + 제주 4개 지점 위치

※이상고온(저온) 발생일수: 이상고온(저온)은 평년(1991~2020년)에 비해 기온이 현저히 높은(낮은) 극한현상으로 일최저·최고기온이 90퍼센타일을 초과(10퍼센타일 미만)에 해당하는 일수를 나타냄

※폭염일수: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수

※열대야일수: 밤최저기온(18:01~다음날 09:00)이 25℃ 이상인 날의 수

7월 지점별 이상고온 일수 및 현상일수(일)

지점명	이상고온 일수		현상일수		지점명	이상고온 일수		현상일수	
	최고기온	최저기온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최고기온	최저기온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속초	9	8	7	7	강화	4	14	1	5
철원	6	10	1	4	양평	2	9	6	5
대관령	13	14	0	0	이천	5	15	10	7
춘천	3	5	8	3	인제	5	9	1	1
강릉	9	8	11	14	홍천	3	8	9	2
서울	4	12	2	13	태백	10	10	0	0
인천	5	17	1	14	제천	3	8	0	0
원주	5	13	11	8	보은	4	15	3	3
수원	3	7	4	11	천안	3	6	4	5
충주	5	11	11	9	보령	8	17	3	15
서산	5	17	2	10	부여	4	7	8	9
울진	8	10	7	7	금산	7	13	16	5
청주	8	19	14	17	부안	6	11	10	14
대전	7	8	11	13	임실	3	16	5	3
추풍령	5	9	3	2	정읍	7	7	16	11
안동	7	7	16	6	남원	6	13	12	11
포항	10	12	18	21	장수	6	9	2	0
군산	7	8	5	15	장흥	9	14	9	11
대구	9	10	22	19	해남	4	14	7	14
전주	7	9	17	18	고흥	13	13	10	11
울산	12	9	14	14	봉화	5	14	2	0
창원	14	13	13	20	영주	3	7	1	3
광주	6	13	12	20	문경	5	20	8	3
부산	16	23	9	17	영덕	11	8	15	8
통영	10	11	6	14	의성	8	16	20	2
목포	5	15	0	20	구미	11	18	21	12
여수	13	22	4	22	영천	11	9	20	8
완도	17	18	11	18	거창	14	12	15	4
제주	10	13	15	25	합천	11	12	18	8
고산	5	11	1	21	밀양	16	12	20	15
성산	11	18	3	16	산청	8	12	13	8
서귀포	15	8	7	24	거제	7	9	7	18
진주	10	10	11	10	남해	8	9	9	14